

등급별 반영 점수차 대학 제각각... 영어가 변수

■정시지원 단계별 전략

1단계 자신을 냉정히 파악

- 신속·정확하게 가채점하기
- 정시 지원가능 대학 파악
-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 결정

↓

2단계 지원 대학 조사

- 지원 대학 선발 방법 비교·분석
- 자신의 수능 성적에 따른 유불리 분석
- 지원 대학의 정원 및 경쟁률 변화, 수능 반영방법, 추가합격 현황 등 분석

↓

3단계 나만의 전략 짜기

- 군별 지원 성향 결정
- 군별 3~5개 목표 대학 그룹 선정
- 유리한 수능 활용 방법 찾기
- 변수들을 고려한 최종 지원 결정

〈유웨이중앙교육 홈페이지 참조〉

전남대 10점·조선대 3점 등
절대평가 영어 정시 반영 조정
모집요강 철저히 확인해야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는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대부분 대학이 절대평가에 대응해 영어 반영비율을 조정하면서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24일 유웨이중앙교육에 따르면 전국 주요 대학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서울)는 1등급 아래 등급에 대해 국어·수학·탐구를 토대로 한 환산점수를 감점하는 식으로 영어성적을 반영한다.

서울대는 2등급부터 0.5점씩, 고대는 2등급은 1등급보다 1점, 3등급부터는 2점씩 점수를 깎는다. 서울대의 경우 영어 9등급이 1등급보다 4점을 손해 보고 고대는 15점이 감점된다.

서강대와 성균관대, 중앙대(서울) 등은 가점을 준다. 서강대와 중앙대는 등급별 점수 차가 각각 1점과 0.5점이고, 성균관대는 3~11점이다. 가점이라고는 하지만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 수준을 고려하면 감점과 큰 차이는 없다.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한국외대(서울), 국민대 등은 비율로 영어성적을 반영한다.

이런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영어성적을 환산점수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반영하는지와 등급별 점수 차를 모두 살펴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연세대는 영어 반영 비율이 인문계열 16.7%, 자연계열 11.1%며 등급별 점수차는 최소 5점에서 최대 20점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대학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반영비율, 등급별 점수 등을 적용한 환산점수를 스스로 계산해 합격 가능성이 큰 대학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주 송덕고 장광재 진학담당 교사는 “수시는 문제가 없지만 정시는 대학마다 반영기준이 각 대학별로 다르다”라며 “전남대는 등급차 차이점수가 10점인 반면 조선대는 3점이다. 영어성적을 환산점수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반영하는지와 등급별 점수 차를 모두 살펴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자신의 영어점수가 몇점 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적 발표 이후 표준점수가 나오면 대학별 점수로 환산된 점수를 보는 게 중요하다. 과목별로 반영비율을 고려한 가중치를 보고 대학별 환산점수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대동고 오창욱 영어교사는 “대학마다 영어과목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곳도 있지만 반대로 차감하는 곳도 있다”면서 “자신이 지원할 대학의 반영비율, 즉 증감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청년창업의 모든 것’ 오늘 광주대 행사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창업지원단이 28일 학교 호심관 일원에서 ‘2017 청년창업인마당투어’를 개최한다.

“꿈꾸는 자여! 창업을 두드려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광주대 창업지원단 소속 창업자, 창업동아리, 산학동아리 등의 지난 1년간 성과 보고회와 창업경진대회, 창업 뮤지토코스, CEO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호심관 1층 로비에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메디다, 벤처마이닝랩스티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비스타 등 광주대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 기업 18곳과 창업동아리 성과물과 제품 등이 전시된다.

호심관 3층에서는 VR, 드론, 네일아트, 메이크업, 플라마켓 관련 업종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광주대 창업지원단,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신용보증기금 광주창업성장지원 등에서는 창업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경영상 애로사항, 자금조달 원스톱 상담 창구를 운영해 청년창업자 및 창업기업들의 문제해결 멘토링을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비즈쿨 창업경진대회’, 청년창업자 이정현 대표(1%공작소), 이희진 대표(썬디자인고) 등이 참가하는 성공창업 뮤지토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린다.

광주대는 올해 중소기업부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매년 20억원 안팎 사업비를 받아 학생 창업자, 창업 기업 지원과 창업동아리,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청년창업인마당투어를 통해 대학생과 청년창업자의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관심을 높여 광주대가 지역 창업클러스터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올 수능 ‘찍기 신공’ 안 통했다 정답 ‘균등 배분 원칙’ 없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에서는 수험생들이 정답이 알쏭달쏭할 때 발휘하는 이른바 ‘찍기 신공’이 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수학 영역 답안지를 보면 가형과 나형 모두 ①번에서 ⑥번까지 선택지에 답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았다.

2012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수학 영역에서는 정답이 각 선택지에 균등하게 배분됐다. 선택지별 정답 개수가 ①번 4개, ②번 4개, ③번 4개, ④번 4개, ⑤번 5개 식이었다. 예외 없이 정답이 4개 선택지에 4개씩, 1개 선택지에 5개 배분됐다.

반면 올해 수능에서는 가형의 경우 ①번 3개, ②번 4개, ③번 5개, ④번 5개, ⑤번 4개였다. 나형도 ①번 4개, ②번 5개, ③번 4개, ④번 3개, ⑤번 5개로 배분이 균등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시험에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일부 수험생들은 정답 개수를 토대로 한 행운에 기댈 수 없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출제 매뉴얼에 있는 ‘선택지 편중’ 관련 지침은 특정 선택지에 정답이 심하게 쏠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지 선택지에 정답을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지침에 따라 매년 출제자들이 대강의 정답 배분 범위를 정하기는 하지만 소문으로 나도는 ‘균등 배분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동강대 건축토목조경학부(건축전공)는 최근 교내 이공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건축디자인전’을 열었다. <동강대 제공>

청년이 찾는 말바우시장을 디자인하라

동강대 건축전 12개 작품 전시

동강대학교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미래 건축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작품을 선보였다.

동강대 건축토목조경학부 건축전공(학과장 이용범)은 최근 교내 이공관 2층 특별전시실에서 이민숙 총장과 보직자를 비롯해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김중식 회장과 김중원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건축디자인전 및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건축디자인전은 도시재생을 주제로 말바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총 12개

작품이 전시됐다.

전시 작품들은 말바우시장 자체 모형을 바꾸기 보다는 상인들의 휴식공간이나 병원, 오피스텔, 복합상업시설, 미용문화센터 등 다목적 공간 설계를 통한 유동인구 유입에 초점을 맞췄다. 작품전 참가 학생들은 1학년 1학기 기초학습프로그램으로 배운 ‘스캐치업’(SketchUp) 프로그램을 활용해 3D모델링으로 조도도를 완성했다. 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통해 도면 응용 작업을 했다.

동강대는 지난 9월 이민숙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들이 말바우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상생을 약속하는 등 평소 전통시장 활

성화에 앞장서고 있어 이번 건축전이 갖는 의미가 더욱 빛났다.

올해로 41회째 개최된 동강대 건축전은 매년 지역과 사회 트렌드에 맞는 작품을 선보이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광주 푸른길 주변지역 재생을 주제로 한 작품전에 이어 2015년에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정식 개관에 맞춰 ‘아시아 문화전당 문화 허브 조성’을 주제로 ‘세계로 뻗어가는 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모습을 제안했다. 지난해에는 미래 주택의 방향성을 제시한 작품전을 개최했다.

건축전을 지도한 송정석 교수는 “말바우시장의 인건 변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을 선보이게 됐다”며 “학생들의 새롭고 독특한 평면 계획 및 설계디자인의 작품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목포대 섬 전문 국책연구원 유치 총력

목포대학교가 섬 전문 연구원인 교내 도서문화연구원을 기반으로 국책연구원 유치를 힘을 모은다.

목포대 기획처와 도서문화연구원은 오는 30일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도서문화연구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

목포대는 인문한국(HK)사업 이후 대안으로 국책연구원(가칭 섬 정책연구원)을 유치하기로 하고 최근 컨설팅에 이어 워크숍을 통해 유치 방안을 논의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강봉룡 도서문화연구원장이 ‘도서문화연구원의 성과와 발전방향-국책연구원 유치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나승

만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진다.

강 원장은 “21세기는 전 세계가 섬에 주목하는 시대”라며 “전국 섬의 65%를 오는 30일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도서문화연구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연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섬 전문 연구기관이다.

1999~2009년 국책 연구프로젝트인 중점연구소 사업, 2009~2019년 HK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과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희망기업 분석 경진대회 성료

동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김수근 학생취업지원처장)가 학생들의 취업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추진했던 기업분석경진대회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동신대 대학일자리센터는 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기업에 대해 바로 알고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9월 기업분석경진대회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두 차례의 컨설팅과 발표회를 거쳐 최근 프로그램을 완료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상담심리학과 등 8개 학과 학생들이 각각 팀을 만들어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전KPS, 안광학의료기기 개발 회사 휴비츠,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싸이몬, KNET 등 취업희망기업의 경영환경, 직무, 채용정보를 분석하고 개인별 준비전략을 세우며 취업 역량을 높였다.

또 학생들의 분석 자료 발표를 대학일자리센터, 전남경제혁신센터, 광주경제혁신센터, ㈜이우군HR연구소 등 전문기관 전문가들이 평가해 보완 지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h3>북구, 삼각동 토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h3>나주, 다도면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h3>콘도 / 무인텔</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h3>수기동, 제일오피스텔</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800만원(조정가)
<h3>공산면, 상가주택</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h3>비금도, 팟섬</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h3>거문도, 펜션부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4900만원 (조정가) 	<h3>중동, 근린상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